

Ayo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5차 세션, 고린도후서 4장, 진흙 항아리 속의 보물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고린도후서 4장, 진흙 항아리 속의 보물입니다. 압력과 적대자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사역자들이 사탄의 반대를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찾아 오지만, 문제는 이런 역경이 우리에게 그만두기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단과 사람들 사이에서 목회 사역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부르거나 그게 뭐든 말입니다. 그러면 풀뿌리 리더십의 이런 감소를 실제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를 지금처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그가 직면한 모든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구절에서 묘사하는 것 중 일부는 우리가 생계의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는 3장 6절의 주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4장 1절로 넘어가고 있지만, 바울은 3장 6절에서 언약의 사역자가 되도록 신이 임명하고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한 주장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반대자들의 사역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계속 발전시키고 옹호하며, 특히 복음 메시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사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시작하고, 그런 다음 그의 반대자들과 구별되는 자격, 즉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는 자격을 덧붙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것이 은혜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자비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에서 직면했던 역경은 그가 그만두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기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면했던 어려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기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런 다음 그는 새 언약의 목사로서 모든 부정직과 속임수를 포기했으며, 대신 진실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양심에 자신을 계속 추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 메시지를 위조했다는 것을 부인하며, 그의 반대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지, 비유적 표현, 역설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약함이 사도적 부름의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받는 주님에게서 유래한 사역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 바울이 하는 일은 자신의 고난을 명예의 상징이나 제자도, 사도도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사도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고난은 내 사도적 소명을 증명하고 확증합니다.

그러니 본문으로 가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자비를 받았고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구절을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하는 바이며, 바울은 16절에서 같은 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기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낙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모세보다 더 큰 특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했지만, 그것은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새 언약에 기초한 사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율법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의 목사는 율법의 중재자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 아래서 섬기라는 이 신성한 사명을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하기 위해 견뎌낸 모든 시련을 보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시련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가끔 우리는 사역에서 마주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것들은 모든 고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 그는 우리가 사역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절하지 않으려는 이 생각에 대해 바울은 16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우리는 부정직의 숨겨진 것들을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활하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식으로 다루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전에 바울의 편지가 전화 통화의 한쪽 끝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듣고, 다른 쪽의 말은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통해 다른 측면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히 사기적 행동으로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2장 17절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아니요, 우리는 말씀의 행상인이 아니라고 말했고, 자신의 방법과 메시지에 대한 그런 특징적 묘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바울은 내 전략이 결코 비밀스럽거나 기만적이지 않았으며,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메시지를 기만적으로 또는 부정직하게 조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주어진 대로 말씀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주장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것이 그가 복음을 변질시킨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어떤 자기 칭찬이든, 어떤 자기 방어든, 자기 칭찬은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역할을 합니다. 일단 자신을 방어하면, 글썄,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게 바로 나와라고 말할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아닌, 이것이 바로 내가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칭찬하고 있지만, 그의 칭찬은 모든 지점에서 자기 정당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진실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호소는 당파 정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편견이나 인간적 편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양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기 칭찬은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삼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모든 비난을 반박하고,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말하면서도, 나는 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과 사역에서 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교활하게 일하는 부정직의 숨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역에서의 성실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를 보고 싶다면 성실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제 말은, 단계별로, 모든 장에서요. 바울이 반대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는 자신의 성실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반대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해야 했던 유일한 것은 그의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교활하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적으로 다루지 않고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일합니다. 이제 저기를 보세요, 교활하게 일합니다.

불행히도 24세기에 우리는 사역에서 많은 교활함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은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면, 이 세상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멀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바울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듯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엘리트만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코린토인들이 주장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모호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은밀했던 것처럼. 논쟁을 위해, 바울은 인정합니다. 오, 그래, 좋아, 논쟁을 위해 동의합시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의 복음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자신의 행동이 아닌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얼굴을 멀게 했기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려져 있는 곳은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의 불신에서 비롯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현 시대의 신에 의해 눈멀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시대의 신에 대해 말할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자로 여겨지는 사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자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찬탈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제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물론,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아버지의 세상이지만, 당신이 흐느끼며 울부짖는 원수는 먹고 이 시대의 신입니다. 이 시대가 신으로 삼은 자입니다. 무신론자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내 자신의 신이야. 알았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이 당신에게 행복을 주나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이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이 없어요, 이 시대의 신.

그리고 당신은 이 시대의 신과 사탄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바울에게서 이원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이고 시간적인 이원론입니다. 그는 이 시대의 신입니다. 그는 물질적이거나 형이상학적 신이 아닙니다.

사탄은 다가올 시대의 신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이 시대의 신이며 찬탈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사로서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신이시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글썄요, 당신은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그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전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이 그들의 얼굴을 멀게 하여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때, 물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고 완전한 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과 거의 비슷하게 들립니다 .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도마는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 예수님은 나를 보았고, 아버지는 보지 못했습니까? 나를 보았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 나는 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신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는 그것이 신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개성과 독특성을 모두 암시하는 아이콘과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개성과 독특성.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거기서 복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우리 자신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양심에 자신을 추천해야 했을지 몰라도, 자신을 광고하거나 전파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미디어 중심 사회에 살고 있고, 설교자는 학생을 이용해 자신의 웅변이나 웅변 기술을 보여주고, 물론 약간의 체조를 보여주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오락에 대한 욕구와 오락에 대한 욕망을 가진 회중은 그 압력을 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이 웅변을 잘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 말은, 웅변술이 중요하고, 웅변도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때때로 사람들은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본질에 관심이 없고, 웅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말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설교합니다. 때로는 30분, 1시간 동안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가 정말 무슨 말을 했을까? 그가 정말 무슨 말을 했을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자기 홍보에 관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어떤 곳에 초대를 받았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고, 어젯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날 어떤 분이 전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저는 예배 후에 그 분을 찾아가서, 형제님, 누구누구, 정말 감사하고, 간증을 나눠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게 형제님을 위한 말씀인지, 그리고 회중이 다른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가 찾는 것이지만,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설교합니다. 설교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 일, 제가 저기 갔을 때, 여기 왔을 때 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설교에서 나, 저에 대해 400번이나 언급했고, 예수님은 단 한 번만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다시 살펴보고, 우리의 설교를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을 다시 살펴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설교자가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앞에 이것을 광고판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어느 순간, 회중의 어떤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너무 고풍스럽고 너무 길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들은 왜 짧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짧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얼마 후에, 그들은 돌아와서, 아니, 아직 길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조금 바꾸었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 설교하고, 이것에 대해 설교하고, 저것에 대해 설교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간결하게 만들고, 눈길을 끌고, 트렌디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끌어내려, 우리는 설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하는 많은 회중과 어떻게 비슷해 보입니까? 하지만 무엇을 설교합니까? 누구를 설교합니까? 이제 이것을 들어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어떤 교리를 설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하든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설교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을 설교할 때조차도, 우리의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고,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도록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베푸는 것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전파의 기본 요점인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사실, 그가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노예와 *doulos* 이며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주님을 전파합니다.

복음의 충실한 전령자로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스스로에게 주의를 끌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이 모세의 사역보다 더 영광스러웠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영광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결코 자신을 광고하거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목사의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온 세상이 쫓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세상이 쫓아다니는 거야? 전 세계를 설교하는 거야. 하지만 흥미로운 건, 많은 설교자들이, 글썄, 전 세계를 돌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설교한다고 말하잖아. 아니, 어렵지 않아.

뉴욕의 다민족 교회에 가면, 아프리카인, 카리브인, 인도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한 자리에서 전 세계를 다 돌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광고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광고하거나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전서로 오지 않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역할을 노예, 하인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겸손이라는 같은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6절에서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주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5~7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본질과 웅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질이 있고, 웅변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보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죠? 질그릇에 담긴 보물. 4장 7절부터 5장 10절까지 십자가 설교의 고난과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독교의 역설적 본질을 바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역설적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서신 중 어느 것도 고린도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은 역설을 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7절에서 12절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역설입니다.

복음 보물의 형언할 수 없는 가치와 복음 사역자들의 명백한 약함과 무가치함의 차이. 이것이 약함입니다. 그릇은 약하지만 내용은 강력합니다

.

이것은 약함 속의 힘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물, 우리는 이 보물을 흙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위대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위함입니다. 그는 6절에서 진흙 항아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빛으로서 진흙 항아리에 있는 보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번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을 질그릇이라고 묘사하면서 인간의 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는 단순히 몸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빛을 지닌 자들의 하찮음과 매력 없음을 빛 자체의 아름다움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당신은 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가지고 있고, 램프는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안에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목적, 이 대조 뒤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신성한 목적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은 고난을 겪고 있었고, 고난을 겪고 있었고, 약했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눈이 멀었던 설교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신은 그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눈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자와 같은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신은 그를 사용하실 것이고, 기적이 행해질 것이고, 그의 집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절름발이가 걸을 것이고, 눈먼 사람이 볼 것이지만, 그 자신은 눈멀었습니다.

역설이네요. 눈먼 사람이 설교하고, 눈먼 눈이 뜨이고 있어요. 이 남자가 어느 순간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했고,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인터뷰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글썄요, 아마 당신이 제게 묻고 싶어하는 질문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는 충격을 받았고, 아마 당신이 제게 묻고 싶어하는 질문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먼 눈이 보이고, 절름발이가 걷고 있는지 묻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왜 내가 눈이 멀었을까요? 그는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걷고 계시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 두었으니, 그 탁월함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눈멀었지만, 질그릇이었지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눈먼 사람이 전파하고, 눈먼 사람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그는 눈먼 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영광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 능력의 탁월함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8, 9절에서 바울이 8, 9절에서 우리를 위한 대조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가 거기서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혹스럽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쓰러졌지만,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는 자는 항상 죽음에 넘겨지나니, 예수께서 병드심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멸성 육신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 안에 걷고, 생명이 너희 안에 걷는다. 보시다시피, 그 구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4절에서 시작하여, 4절이라고 말하고, 6절에서, 7절에서, 5장 10절까지, 그는 자신의 연구, 자신의 몸, 자신의 고난을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 받을 하늘의 몸과 대조합니다. 구약에서, 그 이미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흙 항아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예레미야 22장 28절과 시편 30편 13절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흙 그릇이나 항아리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처벌로서 고통을 겪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바울에게 이 고통은 사도적 봉사의 고통입니다.

이 구절에서 대조되는 요점은 메시지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와 메신저의 고통 사이의 역설입니다. 바울의 진술 뒤에는 매우 약한 그의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한 암시가 있으며, 그는 자신이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신성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며, 역설적으로 사도로서 전도하러 갈 때 그의 고난에 그 능력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약함과 고난이 사도적 사명의 증거나 부족을 구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직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신

주님에게서 파생된 사도직이며,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바울은 우리가 고난의 목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8절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네 가지 생생한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우리는 사방에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혹스럽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쫓겨났지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를 사용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발견하는 각각의 은유는 군사적 전투나 검투사적 전투를 반영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사방이 곤경에 처해 있지만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당혹스럽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쓰러졌지만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당신은 그리스어에서 그 단어들을 살펴봐야만 하고, 나는 그것들을 조금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하고, 우리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각각의 은유는 군사적 은유, 즉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지에 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지에 몰렸지만, 궁지에 몰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움직일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행복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새 영어 성경은 결코 지혜의 끝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당황하지만, 결코 지혜의 끝에 다다르지 않는다. 즉, 결코 당황하지 않지만, 결코 완전히 당황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거기에는 연극이 있다.

그는 적에게 쫓기긴 했지만 적의 자비에 맡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쫓기긴 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들어라, 땅에 알려졌지만, 영구적으로 땅에 갇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를 바구니에 넣고, 반대편에 두었고, 특정한 한 곳에서 그는 누워 있었고, 그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아이들처럼, 아마도, 이걸 단지 추측일 뿐이지만, 바울은 그들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고, 그의 눈을 조금 뜨고,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한쪽 모서리를 열었고, 거기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쓰러졌지만 영구히 땅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10절은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보는 대조, 역설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어가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죽지만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니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압박을 받고, 당혹스러워하고, 박해받고, 쓰러지는 경험을 요약합니다.

반면에 그는 예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여 주께서 그를 짓밟힘, 절망, 버림받음, 파괴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이 필멸성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예고합니다. 고난 속에서의 위로. 하지만, 체포하는 문구의 의미, 예수의 죽음도 11절에서 설명됩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자들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필멸의 육신에서도 나타나도록 위험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강력하고 강력하고 강력합니다.

그 두 구절은 예수의 생명의 죽음을 사도의 경험에서 동시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정의합니다. 그것은 사후의 생명이나 죽음을 통한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한가운데서의 생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한가운데서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부터 거듭된 구원은 부활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기억하세요, 1장은 이미 그가 삶에 대해 절망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12절에서 대담한 일격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당신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다시 삶과 죽음의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은 우리가 고난의 목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1절은 약간 다른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이전 구절을 명확히 합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졌는데, 이는 그의 믿음과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의 패턴에 자신을 맞추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마음은 빌립보서 3장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거기서 그는 내가 그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와, 그의 부활과, 그의 죽음과, 그의 생명과, 모든 것에 동형화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그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의 고난에 대한 참여는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에 대한 순응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오순절교도들, 그리고 저도 그중 한 명인데, 고난과 역경이 성령 충만한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오순절교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고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다면, 소위 번영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은 바울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 고통받았다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통받았습니다.

오늘날 고난과 역경은 영으로 충만한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리하거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겨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바울은 그것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의 사역을 입증하는 것은 그의 고난입니다.

바울의 시대와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사실,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사형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며,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고난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고난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과 영원의 관점에서. 이제 질문은 바울이 그의 사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믿었으므로 말하였느니라. 우리도 믿고, 그러므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일으키신 이가 예수로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세우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무엇이 바울을 격려했을까요? 무엇이 그가 자신의 사역을 충실하게 나누고 수행할 수 있게 했을까요? 글쎄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스스로 침묵할 수 없다는 시편 기자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자신의 기독교적 확신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그는 믿음이 침묵할 수 없다는 시편 기자의 확신을 공유했고, 물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들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울은 인용문에서 칠십인역을 그대로 따르며, 그는 “나는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번역은 시편의 정신과 일치하지만, 그의 정확한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어로 정확한 단어를 인용하지 않았지만, 칠십인역이 바울의 성경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는 칠십인역을 인용했습니다. 시편의 맥락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병에서 신이 구원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완전한 낙담이며, 그런 다음 그는 주님께 가장 적절하게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그것이 시편 116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시편 기자의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롭다고 여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최고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한 또 다른 이유는 그의 개인적인 부활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5절, 16절, 15절과 16절을 말합니다. 14절로 돌아가서 14절로 갑시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서게 하시리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이 계속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도로서 행동해야 하고 자신이 겪은 고난에 복종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고난과 메시지는 고린도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더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의 믿음이 지상의 환난 너머에 부활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가진 희망이며, 그 희망은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주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지식,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그를 일으켜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지식, 그리고 암묵적으로 그분께서 고린도인들도 일으키실 것이라는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내가 믿는다 고 말할 때의 모호한 느낌이 아닙니다 .

그것은 주관적인 감정,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대상이 있는 믿음입니다.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저 느끼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기초는 그의 회심이지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그의 욕망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1절에서 말한 것은 16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는 앞의 구절들을 요약한 다음 1절의 주제를 이어갑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외적인 사람과 내적인 사람을 구분합니다. 외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온전한 사람이거나 그가 나열한 다양한 공격과 고난을 겪는 인간성의 한 측면입니다.

속사람은 오직 신과 자기 자신만이 아는 보이지 않는 성격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신체적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사람은 매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현재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대조로 넘어갑니다.

이 삶과 다가올 삶. 바울의 반대자들에게 현재는 영광의 시간이지만, 바울에게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은 고난을 통한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장을 마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걸음을 내딛는 데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17절과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잠깐인 가벼운 환난이 우리에게 더욱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중량을 이루게 하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비록 우리의 걸사람은 멸하여도 속사람은 날마다 구속함을 얻느니라. 아시다시피, 제가 17절을 읽을 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가벼운 고통을 말할 때. 다섯 번 맞으면 가벼운 고통. 감옥에 가면 가벼운 고통.

막대기로 맞고, 가벼운 고난.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맞고, 고난을 보게 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읽은 것과 고린도후서에서 읽은 것을 모두 합치면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만약 그것이 큰 고통이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가벼운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 격려받으십시오.

나는 당신이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 들어보세요. 그는 가벼운 환난이지만 잠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죠, 가끔은 순간이 하루라고 생각하죠. 아니, 하루가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순간이라고 부르죠.

제 말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이미 그의 회심 후 30년 정도였고, 그는 첫날부터 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서를 쓸 당시는 여러 해가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는 모든 것을 요약하고, 모든 고통을 함께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했습니다.

순간은 30년 이상입니다. 와. 그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은 단지 순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걸 보고, 이걸 듣고 계시죠. 여러분의 고통이 무겁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편이 무겁다는 건 알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잠깐일 뿐입니다. 그는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무게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볍고 다른 하나는 무겁다는 것을 보십니까? 가벼운 고난 무거운 영광 영원한 무게. 하나는 잠깐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합니다.

환난은 가볍고 영광은 무겁다. 환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 와우.

뛰어난 선물. 현재, 현재의 순간적인 고난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열심히 보이지 않는다. 이제 들어보세요, 왜 그는 낙심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는 새롭고 더 뛰어난 언약의 목사로서의 신성한 사명입니다. 그는 누가 그를 불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영적 복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하는 즉각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이유로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그 이유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목사로서의 그의 사명.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전망, 그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사람들을 세우는 즉각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생과 고통이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훌륭한 보상이 있었지만 그는 외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그렇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7절은 매일의 영적 쇄신에 대한 놀라운 정의입니다. 견고하고 지속적인 영광의 끊임없는 생산은 가벼운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영광을 점진적으로 더해질 수 있는 실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그는 골로새서 1:5에서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18절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 영광이 결코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 구절에서 바울은 이 영광이 그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의를 집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고통은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바울의 이미와 아직 아닌 것 사이의 긴장입니다. 필멸자에게 지금 보이는 것과 필멸자의 시선에서 아직 숨겨진 것 사이의 대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역에 대한 집착. 그것은 바울의 임의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었습니다. 바울은 현 시대가 일시적인 반면, 다가올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운명지어진다는 의미에서 영원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4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얼굴을 돌리라”는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의 놀라운 얼굴을 가득 채우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영광과 은혜의 빛 속에서 이상하게 희미해질 것입니다.

낙담할 때, 일이 힘들 때, 사역이 힘들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복음의 목사로서의 사명. 둘째,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가져다주는 기쁨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그것은 일어났고 그것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빛이고 고통은 빛이고 잠깐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Ayo Adewuya 박사의 말씀입니다 . 이것은 세션 5, 고린도후서 4, 진흙 항아리 속의 보물입니다 .